

양민혁, 잉글랜드 챔피언십 1위 코벤티리 임대...램파드 지도 받는다

등록 2026.01.07 09:48:56



[천안=뉴스시스] 이영환 기자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양민혁이 1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서 열린 훈련을 앞두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1.11. 20hwan@newsis.com

[서울=뉴스시스] 하근수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샷별' 양민혁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코벤티리 시티로 임대됐다.

토트넘은 7일(한국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남은 시즌 양민혁이 임대로 코벤티리에 합류한다"고 발표했다.

양민혁은 코벤티리 구단을 통해 "훌륭한 전통과 역사를 가진 팀에 합류하게 돼 매우 기쁘다. 코벤티리를 상대했을 때 정말 좋은 분위기를 느꼈는데, 그런 팀의 일원이 돼 더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독님이 나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이곳이 내게 맞는 곳이라는 확신했다. 팀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싶고, 경기장에서 내 자질을 증명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 출신인 양민혁은 지난 2024년 데뷔 시즌에서 리그 38경기 12골 6도움을 기록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양민혁은 같은 해 7월 토트넘과 잠깐 계약에 성공했고, 시즌 종료와 동시에 유럽으로 건너갔다.

다만 아직 20세도 채 되지 않은 양민혁이 바로 토트넘에서 뛰기엔 현실적으로 무리였다.

양민혁은 임대를 통해 2024~2025시즌 후반기 퀸스 파크 레인저스(QPR), 2025~2026시즌 전반기 포츠머스 에 이어 이번엔 코벳트리 유니폼을 입게 됐다.

코벳트리는 현재 승점 52(15승 7무 4패)로 잉글랜드 챔피언십 1위를 달리고 있으며, EPL 첼시 전설 출신인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이끌고 있다.

양민혁은 오는 11일 오전 0시 스토크 시티와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라운드(64강)에서 데뷔를 노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hatraker22@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